

# 朝鮮 後期 浮休門中の 佛事와 義謙派 佛畫 —順天 松廣寺 佛畫 造成 佛事を 중심으로—

김다영(金茶暎)

## I. 머리말

## II. 17~18세기 부휴문중과 의겸파의 활동

1. 부휴문중의 불사와 특징
2. 화승 의겸과 화파의 활동

## III. 부휴문중의 사상과 의겸파의 시각화

1. 의겸파의 송광사 불화 조성 불사 참여
2. 부휴문중과 의겸파의 영향 관계

## IV. 맺음말

---

불교중앙박물관 연구원

조선 후기 불화 조성 佛事는 畫僧과 僧侶 門中の 유기적 관계 속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불사에서 승려 문중은 사상을 담기 위하여 주제와 도상을 선택하였고, 화승과 화파는 이를 시각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렇기에 조선 후기 불화의 이해를 위해서는 작가인 화승 및 그의 양식적 특징뿐만 아니라 조성 당시 사찰의 상황, 불사의 참여자 등을 파악하여, 조성 배경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호남 및 인근 지역에서 부휴문중과 불사를 함께 진행했던 18세기 대표 화승 義謙을 중심으로 한 의겸파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의겸파는 부휴문중의 宗刹인 순천 송광사에서 1724년부터 1725년까지 2년간 진행된 불화 조성 불사에 참여하였다. 본 불사를 앞서 언급한 다각적 접근법을 통해 해석한 결과, 송광사 불화 조성 불사에 부휴문중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송광사 불화 조성 불사를 기점으로, 의겸파는 계속해서 호남, 호서, 영남 지역 등 부휴문중 영향권 내의 사찰과 그들이 주도한 불사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부휴문중 사상 시각화에 주요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의겸은 부휴문중으로부터 ‘毫仙’, ‘尊宿’, ‘大正經’ 등의 화승으로서는 이례적인 존칭까지 부여받았으며, 그의 화풍은 三南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처럼 순천 송광사 불화 조성 불사는 부휴문중이 의겸파와 협업하여 문중의 사상을 시각화한 대표 사례이며, 의겸파에게 인맥적, 지역적 기반을 제공하여 의겸이 조선 후기 대표 화승의 위상에 오를 수 있도록 일조하였다. 의겸의 이와 같은 위상과 그가 남긴 작품들은 이후의 조선 후기 불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에, 순천 송광사의 불화 조성 불사는 미술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승려 장인, 승려 문중, 화승, 의겸, 의겸파, 부휴문중, 순천 송광사, 佛事

# 朝鮮 後期 浮休門中の 佛事와 義謙派 佛畫

—順天 松廣寺 佛畫 造成 佛事を 중심으로—

김다영(金茶暎)

불교중앙박물관 연구원

## I. 머리말

義謙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畫僧이다. 40여 년간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畫業을 이어가며 격조 높은 다양한 작품을 남겼고, 이후 조선 후기 불화의 도상, 양식, 화풍 등에 큰 영향을 주었다. 미술사 학계에서도 의견과 관련해서 총체적 연구가 진행되었을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조선 후기 불화의 一脈을 파악할 수 있었다.<sup>1</sup> 아울러 승려 문중과 불교미술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시되어 많은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sup>2</sup>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진행되었

\* 본 논문은 김다영, 「조선후기 부후문중의 불사와 의견파 불화」(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의 일부를 추가, 보완한 논문임.

- 1 최근 10년만 해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정희, 「불화(佛畫) 속에 표현된 호남적(湖南的) 감성(感性)－의겸(義謙) 불화(佛畫)의 도상(圖像)과 양식(樣式)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49(2011), pp.289-330; 정명희, 「1725년 義謙畫派의 송광사 불조전 〈五十三佛圖〉」, 『미술자료』95(2019), pp.142-165; 김영희, 「1730년 의겸(義謙)작 내원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연구－조선후기 백의관음신앙의 측면에서」, 『불교미술사학』29(2020), pp.121-142.
- 2 이용운, 「退雲堂 信謙 佛畫와 僧侶門中の 後援」, 『美術史學研究』269(2011), pp.71-101; 「조선후기 통도사의 僧侶門中과 畫僧 任閑」, 『불교미술사학』23(2017a), pp.127-158; 「조선후기 鞭羊문중의 佛事와 僧侶匠人의 활동」, 『미술사연구』32(2017b), pp.137-165; 「雪松門中 출신 畫僧 慈雲堂 指演的 활동과 助力者」, 『東岳美術史學』22(2017c), pp.5-30; 「조선후기 黃嶽山 畫僧의 활동과 碧巖門中の 助力」, 『美術史學研究』297(2018), pp.147-174; 「17세기 淸州 畫僧 信謙의 활동과 괘불도 조성」, 『미술사연구』36(2019a), pp.133-157; 「화승 義均의 불화 조성과 사명문중의 불사」, 『불교미술사학』28(2019b), pp.499-522; 「19세기 후반 영남의 喚醒系 僧侶門中과 四佛山畫派 畫僧」, 『南道文化研究』39(2020), pp.119-145; 김세영, 「順天 松廣寺 佛祖殿 佛像과 浮休門中の 思想」, 『미술자료』92(2017), pp.43-69; 「朝鮮 後期 華嚴 佛事의 地域的 流行과 僧侶門中 交流：송광사 화엄전 불사 중심으로」, 『미술사학』40(2020), pp.133-160; 김현중(현주), 「조선후기 벽암문도의 사상과 신중도 제작」, 『東岳美術史學』19(2016), pp.35-67.

던 화승 의겸에 대한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이와 같은 새로운 방법론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조선 후기 불교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여러 兵亂 이후 救國活動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승려 문중이 주도적으로 佛事를 추진하였다.<sup>3</sup> 조선 후기 승려 문중은 芙蓉靈觀(1485~1571) 아래에서 분파된 淸虛門中과 浮休門中으로 양분되었는데, 문중의 조사인 淸虛休靜(1520~1604)과 浮休善修(1543~1615)는 같은 스승을 두었지만 각자의 독자성을 갖고 있었다.<sup>4</sup> 부휴문중은 선수의 제자 碧巖覺性(1575~1660)이 義兵과 國役 활동을 바탕으로 三南 지방 사찰에서 다양한 불사를 진행하고, 그곳을 거점 사찰로 삼아 영향력을 넓혀나갔다. 이후 17세기 후반 栢庵性聰(1631~1700)이 順天 松廣寺를 중심으로 주요 법맥을 정리하였고, 송광사를 부휴문중의 宗刹로 삼아 부휴문중의 독자성을 보유했다.

본 논문에서는 부휴문중과 주요 활동 지역을 공유하고, 종찰에서 1724~1725년에 다량의 불화 조성 불사를 진행했던 의겸파와 부휴문중과의 관련성에 대해 주목하였다. 승려 문중과 승려 장인 사이의 영향 관계를 논한 기존 연구 중에,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승 의겸파와 부휴문중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연구된 바는 없었다.<sup>5</sup>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휴문중과 의겸파의 불사 및 활동 영역을 바탕으로 문중과 화파의 특성을 파악하고, 함께 협업하였던 순천 송광사에서의 불화 조성 불사를 통해 부휴문중과 의겸파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Ⅱ. 17~18세기 부휴문중과 의겸파의 활동

### 1. 부휴문중의 불사와 특징

부휴문중은 청허문중과 함께 영관의 문중에서 분파되었고 조선 후기 兩大 門中을 이루었다. 한 문중에서 시작되었기에 비슷한 사상을 공유했지만 각 문중의 독자성은 존재했다. 청허문중은 휴정

---

3 조선 후기 불교미술 이외에도 건축, 불경 및 불서 간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승려 문중의 주도적인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 이강근, 「17세기 법주사의 재건과 양대 문중의 활동에 관한 연구」, 『강좌미술사』26(2006), pp.449-474; 「17세기 碧巖覺性의 海印寺·華嚴寺 再建에 대한 연구」, 『강좌미술사』52(2019), pp.75-97; 김단일, 「17세기 『大方廣佛華嚴經疏』의 간행과 승려문파-사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83(2020), pp.221-242 참조. 부휴문중의 고승 無用秀演(1651~1719)의 문집 『無用堂遺稿』에 나타나는 '문중의 불사에 큰 공을 세웠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문중에서 불사를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無用堂遺稿』, 「題圓通庵記詩」, “兩人心緒兩人同 佛事門中大有功 欲識達摩親指處 鳥啼花落雨餘風” 무용수연, 이상현 역, 『무용당유고』(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5), p.48 참조.

4 문중별 계파 의식과 정체성에 대해서는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성남: 신구문화사, 2010), pp.111-203 참조.

5 의겸의 활동 영역과 관련하여 曹溪山門의 화승으로 추정된 연구는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부휴문중과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의겸을 조계산문의 화승으로 본 연구로는 안귀숙, 「朝鮮後期 佛畫僧의 系譜와 義謙比丘에 관한 研究(上,下)」, 『미술사연구』8·9(1994·1995), p.94.



이후 松雲惟政(1544~1610), 逍遙太能(1562~1644), 鞭羊彦機(1581~1644), 靜觀一禪(1533~1608) 등의 4대 門派로 나뉘어졌고, 이 4대 문파에서 다시 다양한 제자들을 배출하면서 문중의 分派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선수 또한 제자가 다양하였으나, 시대적 영향력이 뛰어났던 제자 각성의 문파로 단일화되어 법맥이 이어지면서 문중의 동일성, 일관성을 비교적 더 유지할 수 있었다.

각성은 황폐화된 불교계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순천 송광사(1609), 完州 松廣寺(1622), 陝川 海印寺(1624), 報恩 法住寺(1626), 求禮 華嚴寺(1630), 河東 雙溪寺(1632) 등 다양한 사찰을 중창하였다. 각성을 포함한 부휴문중이 중창했던 사찰은 그 門徒가 중심이 되어 해당 사찰을 거점으로 삼아 世居하였고, 이에 따라 부휴문중의 사상과 성향은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sup>6</sup> 따라서 전국에서 활동했던 청허문중과 달리 부휴문중은 거점 사찰들이 위치한 湖南, 湖西, 嶺南 등 한반도 남쪽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sup>7</sup> 이처럼 각성의 중창 불사는 부휴문중이 조선 후기에 주요 문중으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각성의 불사 활동과 영향력이 지대해짐에 따라, 그의 문파에서는 碑 건립 불사를 통해 문중을 顯彰하고, 嫡法을 이어나가려는 시도가 있었다.<sup>8</sup> 많은 제자가 스승의 적법을 잇고자 했던 혼란한 상황은 각성의 손제자인 성충대에 정리되었다. 성충은 순천 송광사에 1678년 〈佛日普照國師碑〉, 〈松廣寺嗣院事蹟碑〉를 건립하며 普照知訥(1158~1210)을 포함한 16국사와 조계산을 尊崇하고, 부휴문중 고승들의 승탑을 嫡傳대로 배치하였다.<sup>9</sup> 이로 인해 성충은 ‘浮休善修-碧巖覺性-翠微守初-柏庵性聰’으로 이어지는 적전을 공고히 하였고, 순천 송광사는 문중의 종찰로 자리잡았다.

부휴문중의 사상은 조선 후기 禪敎兩宗 통합의 흐름에 따라 禪敎一致를 중심으로 하여 華嚴敎學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보조 유풍을 표방하였던 부휴문중은 지눌이 강조하였던 선교검수와 화엄의 공조에 맞춰 순천 송광사를 중심으로 화엄사상을 발전시켜나갔다.<sup>10</sup> 이는 부휴문중이 순천 송광사에서 1635년에 『大方廣佛華嚴經疏』를 간행한 사실과 1681년에 성충이 임자도 부근에서 표류된 중국 배에서 발견한 판본으로 『大方廣佛華嚴經疏鈔』 등을 송광사와 가까운 樂安 澄光寺에서 간행한 불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sup>11</sup>

6 부휴문중의 구심점이 되는 순천 송광사의 경우, 지역적으로 가깝고 청허문중이지만 부휴문중과 관련이 깊은 사찰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 연구가 있다. 김세영, 앞의 논문(2020), pp.144-154 참조.

7 불교계와의 교유가 두터웠던 東陽尉 申翊聖(1588~1644)는 이를 두고 ‘송월응상(松月應祥)은 동쪽으로, 벽암각성은 남쪽으로 가서 三韓의 사찰을 나누어 차지하네’라고 표현하였다. 김용태, 「『浮休系』의 계파인식과 普照遺風」, 『보조사상』 25(2006), p.323 및 주석 15 참조.

8 이와 관련해서는 손성필, 「17세기 浮休系 僧徒의 碑 건립과 門派 정체성의 형성」, 『조선시대사학보』83(2017), pp.129-171 참조.

9 김정원, 「조선 후기 호남지역 僧塔 연구」, 『불교미술학회』16(2013), pp.113-142; 박상현, 「조선 후기 浮休系 石造浮屠 연구」(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0 김용태, 앞의 책(2010), pp.254-256.

11 김단일, 앞의 논문(2020), pp.234-238; 이종수, 「숙종 7년 중국선박의 표착과 백암성충의 불서간행」, 『불교학연구』 21(2008), pp.278-287; 이희재, 「17세기 澄光寺의 불서출판」, 『佛敎學報』49, pp.105-107; 조명제, 「柏庵性聰의 佛典 편

이러한 성향은 華嚴講學으로도 이어져 성충은 1691년 선암사 滄波閣에서 華嚴大會를 열었으며, 그의 제자인 無用秀演(1651~1719)은 1719년 華嚴念誦大會를 개최하는 등 華嚴講會가 성행하였다.<sup>12</sup> 각성의 제자인 暮雲震言(1622~1703)과 葆光圓旻(?~?), 晦庵定慧(1685~1741)로 이어지는 그의 문파 또한 화엄으로 명성을 날리기도 하였다.<sup>13</sup>

선교일치와 화엄교학은 부휴문중 외에도 조선 후기 불교계의 공통적인 관심사로, 청허문중에서도 성행하였다.<sup>14</sup> 하지만 사상을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부휴문중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17~18세기에 진행된 불상과 불화 조성 불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주요 전각에 화엄사상의 主佛인 비로자나 삼신불(비로자나불·노사나불·석가모니불)이 봉안된 예는 많지 않다. 서울 慈壽寺, 仁壽寺 〈삼신불상〉(1622), 보은 법주사 〈삼신불상〉(1626), 구례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1636), 순천 송광사 불조전 〈삼신불상〉(1684)이 현전하고 있다. 현전 삼신불에 모두 부휴문중의 승려들이 조성에 관여했고, 부휴문중이 중요시하였던 화엄사상을 시각화 하는 데 적극적이었음이 연구된 바 있다.<sup>15</sup> 또한 17세기에 부휴문중이 조성에 참여한 영산회괘불도는 화승 信謙派가 조성했던 사례가 있어, 이를 통해 부휴문중이 선호하는 화승 집단과 협업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이와 같이 부휴문중의 불사는 주로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는 지역성을 띠고, 문중이 선호하는 승려장인 유파와 불사를 진행하는 특징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휴문중과 비교해볼 수 있는 청허문중의 경우 문중의 분포와 활동이 전국적이기에 삼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던 부휴문중에 비해 특성을 集積하기 힘들다. 또한 주 세거지인 금강산, 묘향산 등의 지역은 현재 북한에 위치하며, 현전 자료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어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sup>17</sup> 의겸파와 부휴문중이 주로 활동하던 17~18세기 삼남 지역으로 한정하여 청허문중의 불교미술 조성 사례를 보았을 때, 義均, 任閑, 指演 등 청허문중이 선호하는 승려장인 유파와 불

찬과 사상적 경향, 『역사와 경계』68, pp.103-111.

12 임석진(기산석진), 『松廣寺誌』(순천: 도서출판 송광사, 2001), pp.179-181.

13 모운진언의 명성은 청허문중의 喚醒志安(1664~1729)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지안은 청허문중의 月潭雪霽(1632~1704)의 법을 전해 받은 청허문중의 승려인데, 진언이 1690년 직지사에서 화엄법회를 열고 있을 때 찾아와 그의 講席을 물려받았다. 이후 이름이 널리 알려져 1725년 김제 금산사에서 화엄법회를 열었을 때 1천 4백명의 대중이 운집했다고 전한다. 이정, 『韓國佛敎人名辭典』(서울: 불교시대사, 1991), p.281 참조.

14 김용태, 앞의 책(2010), pp.266-272 참조.

15 김세영, 앞의 논문(2017), pp.50-51.

16 김정희, 『碧巖 覺性과 華嚴寺 靈山會掛佛圖』, 『강좌미술사』52(2019), pp.114-137; 이용윤, 앞의 논문(2019a), pp.133-153.

17 이와 관련해서는 일제강점기 북한 사찰 재산 문서와 유리건판사진을 비교 검토하여 북한지역의 불화를 다룬 연구가 한 편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의겸이 주요 활동 지역이던 삼남 지역 이외에 현재 북한지역에 위치한 사찰에 초청되어 불화를 조성한 예가 있고, 이는 의겸이 부휴문중과 청허문중 환성파와의 관련성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았다. 이용윤, 「일제강점기 기록자료로 본 북한의 조선 후기 불화-함경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304(2019), pp.218-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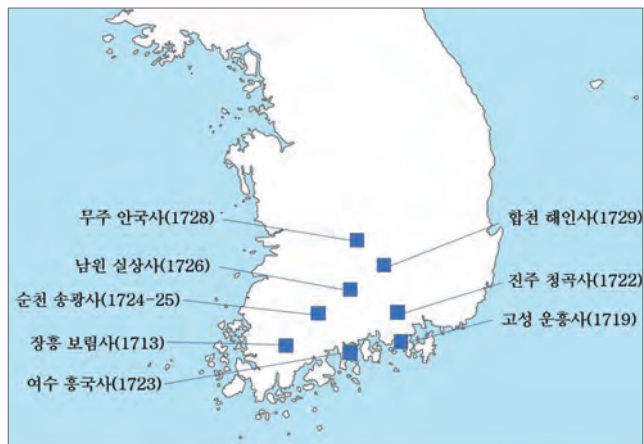
사를 하는 사례가 있으며 관련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sup>18</sup> 그러나 의겸파와 부휴문중의 사례처럼 문중의 사상과 관련된 특별한 주제의 불화를 조성하는 등의 적극적 사례는 비교적 많지 않고, 청허문중과 관련된 사찰 및 문중 승려들의 조력 내에서 화풍, 양식 등의 전승과 공유가 주로 이루어졌다.

결국 부휴문중은 법맥의 분파가 적고, 활동 지역이 다소 국소적이어서 청허문중에 비하여 불사의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18세기 불화 조성에서 의겸파와의 협업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 2. 화승 의겸과 화파의 활동

의겸과 그의 畫派는 18세기에 부휴문중의 영향권인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도 1). 특히 의겸은 활동 기반을 다져가던 시기인 1713년부터 1730년까지 주로 부휴문중의 영향권인 호남과 지리산 및 인근 지역을 활동 지역으로 하여 불화를 다량으로 조성하는 대형 불사를 진행하였다. 의겸은 그러한 불사들을 통해 당시 호남지역에 영향을 미치던 부휴문중과 교류하였고, 이는 그의 화풍과 인맥적 기반의 토대가 되었다.

의겸이 첫 화업을 시작한 곳으로는 장흥 寶林寺가 확인된다. 의겸의 行狀이 존재하지 않아 자세한 생애는 알 수 없으나, 보림사에서 불화의 기본을 배운 것으로 추정된다. 장흥 보림사는 통일신라 九山禪門 중 迦智山門의 중심 사찰로, 조선 후기에도 山門이 흥하여 1692년에 新法堂과 金剛門을 중수하는 등의 중창이 이루어졌다. 중창 불사와 함께 백암성충의 제자 知足忠勳이 1658년부터 1692년까지 보림사에서 이루어졌던 불사 내용을 정리하여 『長興迦智山寶林寺法堂各殿閣寮舍重創燔瓦年月與工師化主別座等芳銜記錄』(이하 『寶林寺重創記』)을 집성하고, 序文을 작성하였다.<sup>19</sup> 이외에도 1671년에는 선수의 제자 松溪聖賢의 진영이 元寂道義(?~?), 園監冲止(1226~1293)의 진영과 함께 조성되었고, 1693년에는 각성의 손제자 雪坡敏機가 화엄 80권을 印出하여 古法堂에 올렸다. 보림사



도 1. 1730년 이전 의겸파의 활동 영역(호남과 지리산 및 인근 지역)

18 이용윤, 앞의 논문(2017a), pp.127-158; 앞의 논문(2017b), pp.137-165; 앞의 논문(2017c), pp.5-30; 앞의 논문(2018), pp.147-174; 앞의 논문(2019b), pp.499-522; 앞의 논문(2020), pp.119-145.

19 『보림사중창기』의 내용은 고경·김희태·최인선·양기수, 『譯註 寶林寺 重創記』(장흥: 장흥문화원, 2001) 참조. 『보림사중창기』에 나오는 승려의 법맥은 앞의 책과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를 참고하였다.

〈제석천도〉(1702) 중수시에는 각성의 증손제자 雙慧가 증명하였으며, 1713년 藥王殿 등을 중수할 때도 성종의 제자 太古性修가 化主를 맡는 등 부휴문종의 영향이 미쳤던 사찰이었다.

의겸은 수화승 奉覺의 아래에서 화승 處英 등과 함께 보림사 〈후불도〉(1713)와 보림사 〈팔상도〉(1713)를 조성하였다.<sup>20</sup> 현재 〈후불도〉와 〈팔상도〉는 남아있지 않으며, 『寶林寺重創記』를 통해 畫記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종의 손제자 頓悟 또한 이 불사에 持殿으로 참여하였던 것을 알 수 있어, 의겸이 부휴문종의 영향 아래에서 화업을 시작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sup>21</sup>

이후 의겸은 1719년 固城 雲興寺의 〈영산회상도〉와 〈팔상도〉 조성에 참여한다. 〈영산회상도〉의 수화승은 廣口였으며, 의겸은 보조화승인 片手로 참여하였다(도 2). 〈팔상도〉에서는 의겸이 처음으로 수화승으로 등장하며, 廣欽과 就眼의 이름이 뒤이어 나온다. 의겸도 수화승으로서 흥국사 〈십육나한도〉(1723), 송광사 〈십육나한도〉(1725), 송광사 〈팔상도〉(1725)와 같이 폭이 많은 불화를 조성할 때 보조화승들에게 각 폭의 수화승을 맡겨 불화 조성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의겸이 운흥사 〈팔상도〉의 수화승이었더라도 1719년에 조성된 운흥사 불사는 광구의 역할이 주도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광구가 수화승으로 조성한 운흥사 〈영산회상도〉는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화풍을 살펴볼 수는 없으나, 앞선 연구에서는 淡彩, 얼굴 표현, 긴 육계와 색채의 사용 등 화풍이 호남지역의 조각승이자 화승으로 활동했던 天信과 비슷하다고 하여, 호남지역 화풍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sup>22</sup> 또한 광구는 明代 版畫集인 『三才圖會』(1607)에서 10대제자의 모습 중 婆須蜜·僧伽難提尊者 도상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았을 때, 선구적 화승으



도 2. 廣口 등, 고성 운흥사 〈영산회상도〉, 1719년, 소재 미상(『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 p.153)

20 수화승 봉각의 작례는 이 이외에도 곡성 도림사 〈영산회상도〉(17세기 말~18세기 초)가 남아있으나, 그나마도 화승의 순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어 봉각의 화풍을 살펴보기는 힘들다. 처영은 이후 하동 쌍계사 〈팔상도〉(1728)와 〈감로도〉(1728)의 조성에 참여하였으며, 1730년에는 수화승 의겸과 함께 고성 운흥사 〈감로도〉를 조성하였다. 안귀숙·최선일, 『朝鮮後期僧匠人名辭典—佛敎繪畫—』(서울: 양사재, 2008), p.189, p.524.

21 의겸과 청허문중 환성파와의 관련성은 유지원, 최학의 논문에서 제기된 바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그 근거인 〈전법계〉의 나타나는 1代 喚醒志安(1664~1729)과 9代 竹庵儀謙의 활동 연대를 따져보았을 때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승 의겸(-1713~1757-)과 동일 인물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유지원, 「朝鮮後期 畫師 義謙의 佛畫 研究」(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p.18~22; 최학, 「조선후기 화승 관허당 설훈(寬虛堂 雪訓) 연구」, 『강좌미술사』39(2012), pp.191~197.

22 안귀숙, 앞의 논문(1994·1995), p.94.



로 추정되나 작례가 운흥사 〈영산회상도〉 외에는 파악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의겸이 이후 수화승으로서 새로운 도상 수용에 능한 모습을 보인 것을 보면, 보림사에 이어 운흥사에서 불화에 대한 精髓를 익혔던 것은 분명해보인다.

운흥사는 부휴문중과 관련있는 사찰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성충이 『대방광불화엄경소초』와 더불어 嘉興大藏經을 복각할 때 『大明三藏法數』를 順天 定慧寺, 咸陽 靈隱寺 등과 함께 운흥사에서도 간행한 바 있는데,<sup>23</sup> 당시의 불경 간행 불사는 성충의 제자인 성수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다.

운흥사는 지역적으로도 부휴문중의 주요 거점인 호남지역과 가까웠다. 또한 17~18세기에 운흥사에서는 〈목조지장보살좌상〉(1683)과 구법당 〈삼존상〉(1703)을 각각 色難과 守一이 조성하였는데,<sup>24</sup> 두 승려 모두 호남지역의 僧匠이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호남지역의 조각승, 화승과도 교유가 있었던 사찰로 추정된다.<sup>25</sup>



도 3. 義謙 등, 진주 청곡사 〈영산회괘불도〉, 1722년, 마본채색, 1,040×640cm, 진주 청곡사(『韓國의 佛畫』 권5, 도2)

의겸이 수화승으로서 자신의 화파를 본격적으로 이끌게 된 것은 1722년 淸州 靑谷寺 〈영산회괘불도〉 조성 불사부터 확인된다(도 3). 청곡사는 운흥사와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두 사찰 간의 친연성으로 의겸이 불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6</sup> 청곡사 〈영산회괘불도〉를 함께 조성했던 화승 卽心, 興信, 向敏, 良運, 敏熙, 採仁, 日敏 등은 1730년대까지 의겸과 함께 義謙派를 구성하며 불화 조성에 참여하였다.

청곡사 〈영산회괘불도〉는 『五種梵音集』의 舉佛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중앙의 釋迦牟尼佛을 중심으로 좌우 협시인 文殊·普賢菩薩과 뒤편에 이를 증명하는 多寶佛과 阿彌陀佛, 협시인 觀世音·大勢至菩薩과 석가모니불의 제자 阿難과 迦葉을 배치하였다.<sup>27</sup> 일정하면서도 섬세한 筆致와 赤色·靑色을 중심으로 하여 석가모니불의 大衣와 裙衣 등에 그려진 풍부한 문양 표현들로 이미 완숙한 의겸의 筆力을 느낄 수 있다.

23 이종수, 앞의 논문(2008), pp.338-339.

24 김영희, 앞의 논문(2020), p.128 표3 참조.

25 이와 관련해서는 오진희, 「조각승 色難派와 華嚴寺 覺皇殿 七尊佛像」, 『강좌미술사』 26, pp.133-135;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경상남도1자료집』(대전: 문화재청, 2009), p.197 참조.

26 의겸과 함께 운흥사 〈팔상도〉(1719)를 조성한 화승 광흠이 화기에 綵色大施主로 등장하고 있다.

27 정명희, 「朝鮮 後期 掛佛幀의 研究」, 『미술사학연구』 242·243(2004), pp.168-171.

다음 해인 1723년, 의겸은 수화승으로서 대형 불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麗水 興國寺에서 진행된 불사는 〈영산회상도〉, 〈십육나한도〉, 〈수월관음도〉와 佛龕 조성 등 자신의 화파와 함께 여러 종류의 불사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첫 사례였다. 1722년에 진주 청곡사에서 화파를 이끌고 영산회괘불도를 조성한 경험이 있지만 현전 4건 9점에 이르는 여러 건의 불사를 다수의 화승과 분담해서 진행하는 일은 수화승으로서 기획력과 진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쉽지 않은 시도였을 것이다.

의겸에게 이러한 대형 불사를 맡겼던 홍국사는 부휴문중의 영향력이 미치던 사찰이었다. 홍국사는 호남지역 義僧水軍의 駐鎭寺, 송광사, 화엄사는 승군의 야전사령부와 전략적 요충지로서 17세기부터 서로 밀접한 교류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職制는 상설 조직으로, 1894년 전라좌수영이 폐쇄되어 해체될 때까지 계속되었다.<sup>28</sup> 게다가 1703년에 이루어진 홍국사의 중수 또한 부휴문중의 참여하에 이루어졌다. 〈靈鷲山興國寺重修事蹟碑〉(1703)에 따르면 비문은 崔昌大(1669~1720)가 撰하였는데, 최창대는 수연과 교유 관계였으며,<sup>29</sup> 민기 또한 大禪師로 등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홍국사는 부휴문중의 종찰인 송광사와 같은 順天府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지눌이 창건한 사찰이라는 보조 유풍을 함께 공유하기도 했다.

홍국사 불사에서 의겸은 수화승으로서의 능력 외에도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삼재도회』를 통해 습득한 도상을 본격적으로 자신의 불화 속에 녹여낸 것이다.<sup>30</sup> 이렇듯 의겸은 자신이 참여하는 불화 조성 불사에서 수화승으로서의 기획력, 진행력과 더불어 선구적인 도상의 선택, 뛰어난 필력으로 畫格을 증명하였다.

### Ⅲ. 부휴문중의 사상과 의겸파의 시각화

#### 1. 의겸파의 송광사 불화 조성 불사 참여

명성을 높여가던 의겸파는 1724년부터 이듬해인 1725년까지 순천 송광사에서 부휴문중과 함께 불화 조성 불사를 진행하였다. 이 불사와 조성된 불화 등에 대해서는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sup>31</sup> 주로 화파 및 불화의 양식적 특징 위주로 개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문중과 화파의 협업을 살펴보고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 발원문, 당시 송광사의 상황 및 세거하던 승려들의 성향 등을 통

28 양은용, 「壬辰倭亂과 湖南의 佛教義僧軍」, 『한국종교』19(1994), pp.18-32.

29 “當世搢紳之士 鮮不與善 唯領相李公光佐 大司成崔公昌大 叅判李公眞儒 校理林公象德 崔襄陽季翁 金三淵昌洽 黃順天益再 最爲相厚” 『無用堂大師行狀』, 『無用堂遺稿』; 무용수연, 이상현 역, 앞의 책(2015), pp.222-229.

30 신광희, 「麗水 興國寺 十六羅漢圖 研究」, 『미술사학연구』255(2007), pp.67-106; 신은미, 「조선후기 十六羅漢圖 연구—畫譜圖像의 수용과 전개를 중심으로—」, 『강좌미술사』27(2006), pp.237-240.

31 정명희, 앞의 논문(2019), pp.154-161; 최순우·정양모, 『韓國의 佛教繪畫—松廣寺』(서울: 國立中央博物館, 1970).

해 다층적으로 접근해보도록 하겠다.

18세기에 들어선 송광사는 17세기 말 이루어진 성충의 『대방광불화엄경소초』 판각 불사와 연이은 1691년 선암사(講主 성충), 1719년 송광사(講主 수연)에서의 화엄대회를 통해 화엄강학의 장소로서 송광사를 널리 알리고, 문중 종찰의 위상을 높여갔다.<sup>32</sup> 1724년 당시 부휴문중의 적전은 影海若坦(1668~1754)으로 수연의 법을 이었으며, 弘經으로 유명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경전과 敎學에 밝은 승려였던 것으로 추정된다.<sup>33</sup>

불사가 진행되기 전에 사찰에서는 龍象榜, 六色榜 등을 통해 각 소임을 정하고 나누어 불사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畫員 또한 소임 중 하나로 사찰의 승려들과 소통하며 불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證師 등 해당 불사의 주요 소임을 맡은 승려들은 불화의 도상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sup>34</sup> 그렇기에 당시 송광사에 세거하면서 불사의 주요 소임을 맡은 승려들을 파악하는 것이 1724~1725년 불화 조성 불사의 이해에 중요하다.

1724~1725년 불화 조성 불사시 상황은 불화의 화기와 발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광사에

서 의겸이 처음으로 조성한 불화는 응진당 〈석가모니불도〉(1724)였다(도 4). 1724년 6월에 조성된 이 불화는 응진당 목조석가여래삼존상의 後佛圖로, 의겸과 信監, 卽心, 懷眼, 興信, 良運, 向敏, 彩仁, 敏熙, 日敏, 覺天이 그렸다. 응진당 〈석가모니불도〉의 조성시 주목할 만한 주요 소임을 맡은 승려는 證師 永休·處寬·偉鼎·化士 道謙, 別座 圓解, 住持 策勒, 大禪師 雋益·初燭·若坦 등이었다. 먼저 중사인 영휴와 처관은 그전까지 의겸파와 불사를 함께 한 예가 없었으나, 송광사 불화 조성 이후 의겸파가 불화를 조성할 때 자주 증명을 맡았다. 위정의 법호는 普應이며, 수연의 제자로 觀禪으로 유명했다는 기록을 통해 禪定에 능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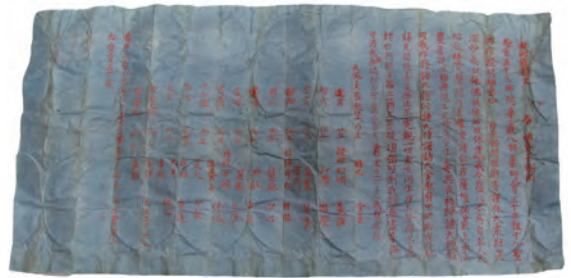
도 4. 義謙 등, 송광사 응진당 〈석가모니불도〉, 1724년, 마본채색, 144.5×166.5cm, 송광사성보박물관(송광사성보박물관 사진 제공)

32 이종수, 「18세기 불교계의 동향과 송광사의 위상」, 『보조사상』45(2016), pp.119-120.

33 임석진(기산석진), 앞의 책(2001), pp.181-182.

34 證明(證師)의 역할은 17세기 이후 강조되었고, 佛事를 총감독하고, 불사, 점안, 낙성식 등을 개최하는 등 대규모 의식을 행할 때 의식 준비 단계에서부터 초청되어 머물며 전 과정을 살피는 일을 맡았다. 정명희, 「조선시대 불교 의식과 승려의 소임 분화: 甘露圖와 문헌 기록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31(2016), pp.268-274. 그렇기에 증명이 불상, 불화 등을 조성할 때, 화승과 소통하며 사찰의 분위기와 문중의 사상에 적합한 주제와 도상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던 승려로 보인다.<sup>35</sup> 도겸은 운흥사 〈영산회괘불도〉(1730) 조성시 三綱의 소임을 맡고 있어 의겸 및 운흥사와 관련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별좌인 원해의 법호는 白月로, 부휴문중의 승려이며 수초의 손제자인 皓月克彬의 제자로 1720~1721년에 주지 소임을 지냈다. 주지인 책륜의 법맥은 알 수 없으나, 1719~1720년, 1724년, 1727



도 5. 송광사 〈오십삼불도 회향발원문〉, 1725년, 紺紙, 23×56cm, 송광사성보박물관

~1729년 기간 동안 총 세 번 송광사의 주지를 맡았던 것으로 보아 부휴문중의 승려로 추정된다.<sup>36</sup> 대선사인 友溪雋益과 碧悟初罔은 성종의 제자로, 같은 대선사인 약탄보다 法階가 높은 부휴문중의 승려다. 이렇듯 화기의 주요 소임을 살펴보면 18세기의 송광사에 부휴문중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게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25년에 의겸과는 본격적으로 송광사에서 대형 불화 불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 해에 〈오십삼불도〉, 〈영산회상도〉, 〈약사불도〉, 〈삼십삼조사도〉, 〈십육나한도〉 등 6건 25점 이상의 불화를 조성하였는데,<sup>37</sup> 〈오십삼불도〉 腹藏囊에서 나온 〈回向發願文〉(도 5)을 통해 불화 조성시 사찰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sup>38</sup>

1725년의 대규모 불화 불사를 주도했던 이는 功德主이자 化主인 彌閑과 別座인 원해였다. 〈회향발원문〉에서도 發願弟子로 필한과 원해가 이름을 올렸으며, 복장낭에서 〈회향발원문〉과 함께 나온 〈黃稍幅子〉와 〈一切如來全身舍利寶齒眞言〉 등에서도 두 승려의 이름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필한과 원해는 불사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원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송광사 주지까지 지낸 부휴문중의 승려로서 응진당 〈석가모니불도〉 조성에 참여하였던 인물이었다. 필한은 月谷彌閑으로, 청허문중의 고승인 喚醒志安(1664~1729)의 제자다. 필한은 대흥사 〈괘불도〉(1764)에 大同廳과 禪堂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행적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부휴문중의 종찰에서 불화 불사를 위해 募緣할 수 있을 만큼 부휴문중과 가깝고 능력 있는 화주였던 것으로 추

35 임석진(기산석진), 위의 책(2001), pp.181-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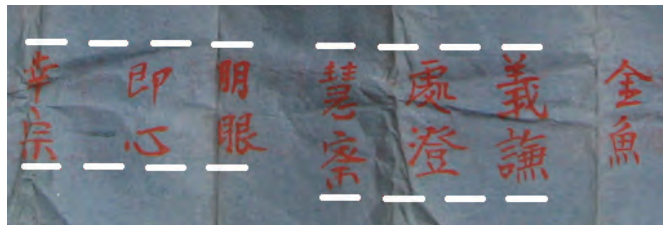
36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本末寺法(1912)』에서도 30본산 중 유일하게 순천 송광사는 부휴선수의 법손만이 분말사 주지가 될 수 있었다. 본 논문에 나오는 송광사 주지 재임 기간은 다음 자료의 주지 계보를 참고하였다. 송광사성보박물관, 『2017 송광사성보박물관 개관도록-새롭게 문을 열다』(순천: 송광사성보박물관, 2017), pp.180-185.

37 송광사 〈회향발원문〉의 “五十三佛陀華嚴八相藥師會三十三祖師十八聖共作...”이라는 기록에 따라 ‘오십삼불타회엄’, ‘오십삼불타·화엄’, ‘화엄팔상’이라는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오십삼불타·화엄’과 관련된 해석은 김세영, 앞의 논문(2020), pp.140-141 참조. ‘화엄팔상’은 『월간 송광사』217(2019), p.19 참조. 본 논문에서는 ‘오십삼불타회엄’을 오십삼불도로 해석하였다.

38 송광사 〈회향발원문〉全文은 김다영, 『조선후기 부휴문중의 불사와 의겸과 불화』(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pp.90-91 부록1 참조.



정된다. 이는 일반인 시주자가 없었던 1724년의 응진당 〈석가모니불도〉에 반하여, 〈회향발원문〉에 崔起望, 洪仁聞, 金雲鶴, 郭弼成 등의 일반인 대시주자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도 6. 송광사 〈오십삼불도 회향발원문〉 金魚 표기(도 5의 세부)

이러한 일반인 대시주 중 주

목되는 인물은 최기망이다. 최기망은 〈회향발원문〉에 대시주로 등장하고 있으며, 불조전 〈오십삼불도〉 중 전각 중앙에 위치한 三身·五方佛이 포함된 七佛圖의 傍題에도 주요 승려들과 함께 비로자나불의 시주자로 참여하였다. 『施主折衝崔起望』이라는 방제의 내용과 1746년 『承政院日記』에 同知中樞府事로 임명된 기록이 있어 折衝將軍을 지낸 武官으로 짐작된다.<sup>39</sup> 최기망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1730년에 順天 大興寺에서 간행된 『長壽經合部』가 있다.<sup>40</sup> 이 책의 刊記 중에는 최기망이 대시주로 등장하고 있어 경판 조성에도 그가 불사의 지원에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준익이 大禪師로 등장하고 있어 최기망이 1725년 송광사 불화 조성 불사 이후 부휴문중과 인연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불사의 증명 또한 부휴문중의 승려들이 증사로 참여하였다. 1724년 응진당 〈석가모니불도〉의 중사 처관과 위정, 대선사 초형이 증사 소임을 맡고, 영휴가 빠지고 以濟가 증명에 참여하였다. 이제의 법맥은 알 수 없지만, 1720년에 진행되었던 송광사 〈사천왕상〉 개채 불사에 證明으로 등장하고 있어 부휴문중의 고승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는 〈회향발원문〉에서 金魚가 수화승 의겸을 비롯해 處澄, 慧察 등 세 명이 다른 화승들에 비해 비교적 큰 크기로 표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도 6). 처징과 혜찰은 의겸보다 먼저 부휴문중과 관련된 사찰에서 활동했던 선배 화승이지만,<sup>41</sup> 수화승인 의겸이 이들과 같은 크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 의겸의 위상을 짐작해볼 수 있다.

## 2. 부휴문중과 의겸파의 영향 관계

의겸파가 1724~1725년 불화 조성 불사에 참여하였을 때 부휴문중의 승려가 주요 소임으로 참여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요 소임 승려의 참여는 의겸파의 불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다.

39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9월 2일 己巳, “啓曰同知中樞府事李珪崔泰萬崔起望高必邦洪九範”

40 순천 대흥사와 부휴문중과의 지역적 관련성은 김세영, 「송광사 불조전 53佛과 華嚴·懺悔 사상」(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p.49-51 참조.

41 처징은 處證으로도 등장한다. 처징과 혜찰의 작례는 안귀숙·최선일, 앞의 책(2008), p.526 및 pp.625-626.



도 7. 義謙 등, 송광사 불조전 <오십삼불도>, 1725년, 마분채색, 139×232cm, 송광사성보박물관(송광사성보박물관 사진 제공)



도 8. 隱奇 등, 선암사 팔상전 <삼십삼조사도>, 1753년, 견본채색, 139×191.5cm, 선암사성보박물관(韓國의 佛畵 권12, 도39)

먼저 의겸과 불화 중 부휴문종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불조전 <오십삼불도>이다(도 7).<sup>42</sup> 佛祖殿(五十殿)은 송광사에서 다른 전각들이 위치한 도량과 거리를 둔 화엄전 등을 위시한 화엄구역에 위치한 전각이다. <오십삼불도>는 화엄전 옆 불조전에 봉안되었던 불화로, 총 7폭이다. 『觀藥王藥上二菩薩經』에 나타나는 53불을 삼신·오방불이 그려진 七佛圖를 중심으로 十三佛圖, 九佛圖, 五佛圖 각 2폭씩 좌우 벽에 대칭으로 그려 봉안하였다. 오불도 한쪽에 過去毘婆尸佛과 當來彌勒尊佛을 덧붙인 것으로 보아 53불을 지극히 공경하여 과거전불, 현재전불, 미래전불이 모두 성불할 것이라고 하는 三劫三緣起思想과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43</sup> 그리고 다른 사찰이 過去七佛 중심의 오십삼불상이나 오십삼불도를 조성했던 것에 반해 송광사는 화엄의 主尊인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한 三身佛을 本尊으로 한 것으로 보아 확실한 화엄세계를 전각에 구성하고자 했던 주제적 특징이 존재했다. 이에 덧붙여 의겸은 주존인 삼신불에 방위적인 의미를 함의한 오방불을 조성하며 화엄세계를 더 확장하고자 하였다.<sup>44</sup> 이러한 오십삼불은 불상으로는 부휴문종과 관련된 사찰 및 순천 지역에서 주로 조성되었으며,<sup>45</sup> 불화로는 송광사와 山門을 공유하는 선암사의 예만 존재하고 있어 부휴문종의 영향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주제다.

33명의 禪宗 祖師를 그린 삼십삼조사도는 조선 후기 이전에 그려진 작례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기록 상 송광사 <삼십삼조사도>가 가장 이른다. <삼십삼조사도>는 현전하지 않아 어떠한 양식과 도상으로 그려졌는지 알 수 없지만, 기록상 가장 이른 삼십삼조사도를 『삼재도회』, 『홍씨선불기종』의 도상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의겸파가 그렸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남아있는 삼십삼조사도와 그 초본도 『삼재도회』와 『홍씨선불기종』의 영향을 받은 도상이 주이며, 송광사와 같은 조계산에 위치한 선암사 <삼십삼조사도>(1753) 또한 그 영향을 받았다(도 8).<sup>46</sup>

42 불조전 <오십삼불도>와 관련해서는 정명희, 앞의 논문(2019), pp.142-165; 최순우·정양모, 앞의 책(1970), pp.25-32 참조.

43 최순우·정양모, 앞의 책(1970), p.27.

44 송광사 불조전 오십삼불상과 <오십삼불도>에 함의된 부휴문종의 화엄 및 참회사상에 대해서는 김세영, 앞의 논문(2017), pp.43-69 참조.

45 김세영, 앞의 논문(2017), p.54.



『釋氏源流應化事蹟』  
『法華妙典』(『釋氏源流應化事蹟』, p.105)



義謙 등, 송광사 영산전 〈영산회상도〉, 1725년, 견본채색, 221×187.5cm,  
송광사성보박물관(송광사성보박물관 사진 제공)

#### 도 9. 講法 比丘像 비교

부휴문중이 삼십삼조사도를 제작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각성의 문도가 1670년에 공주 감사에서 『禪門祖師禮懺作法』을 간행했던 점과 연관이 있어 추정해볼 수 있다.<sup>47</sup> 『선문조사예참작법』은 석가모니 불과 가섭에서부터 慧能에 이르는 禪宗 33조사에 대한 참회와 예참문을 찬술한 의식집으로, 33조사와 우리나라에 선종을 처음 전한 도의 등 열 명의 조사가 포함되어있다. 이 열 명의 조사 중에는 송광사 중창주인 지눌 또한 포함되어있어, 국사전에 〈십육국사진영〉을 모시고 있었던 송광사에서 석가모니불로부터 해능까지 이어지는 선종의 33조사와 지눌로부터 시작되는 16국사를 연속적으로 존숭하면서 송광사의 禪脈을 잇고자 하였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

영산전 〈영산회상도〉는 도상적 특수성이 주목되는 불화다(도 9). 불화 하단에 등장하는 講法比丘像은 조선시대에 조성된 불화에서 송광사 〈영산회상도〉를 포함하여 鎭川 靈水寺 〈영산회괘불도〉(1653), 安城 靑龍寺 〈영산회괘불도〉(1658), 安城 七長寺 〈영산회괘불도〉(1710) 등 총 네 점에서만 확인된다. 송광사 〈영산회상도〉를 제외하면 모두 17세기~18세기 초에 영산회괘불도 형식으로 그려졌다는 점에서 현전 유일한 전각 봉안 불화인 송광사 〈영산회상도〉의 도상적 특징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釋氏源流應化事蹟』과의 관련성이 주목된다.<sup>48</sup> 의겸이 조성한 것으로 파악된 석가모니불 관

46 선암사 〈삼십삼조사도〉에 대해서는 신광희, 「서른 세분의 위대한 조사(祖師)를 그려 모시다 - 선암사 〈삼십삼조사도〉」, 『문학/사학/철학』48(2017), pp.169-183 참조.

47 甲寺本 『선문조사예참작법』은 박세민(세민),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제2집』(서울: 보경문화사, 1993), pp.438-452 참조.

48 『釋氏源流應化事蹟』이 17세기 등장하는 〈영산회괘불도〉 청법 비구상 등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가 있다. 김태형,

런 불화에서는 畫記에 畫題가 ‘靈山後佛幀’, ‘靈山幀’, ‘靈山會圖’라고 표기되었으나,<sup>49</sup> 영산전 〈영산회상도〉는 ‘八相會’라고 기록되어있어 영산전에 함께 봉안되었던 팔상도와 한 세트로 계획했던 것을 알 수 있다.<sup>50</sup>

의겸파가 조성한 팔상도는 조선 후기 팔상도의 가장 이른 예인 醴泉 龍門寺 〈팔상도〉(1709)와 求禮 泉隱寺 〈팔상도〉(1715)에 이어 의겸이 참여한 운흥사 〈팔상도〉(1719), 송광사 〈팔상도〉(1725) 순으로 나타난다. 용문사 〈팔상도〉와 천은사 〈팔상도〉는 『月印釋譜』의 영향이 나타나고, 구성이 산만하며 중국식 그대로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도상을 차용했던 초기 수용 단계에 비해, 의겸파가 조성한 팔상도에 이르러서는 『석씨원류응화사적』 도상이 알맞게 배치되고, 우리나라식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도해된다는 점이 특징이다.<sup>51</sup> 이를 통해 재차 의겸이 새로운 도상을 수용하고, 自己化에 능했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석씨원류응화사적』 도상 수용을 통해 팔상도를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팔상회’의 한 세트인 〈영산회상도〉를 조성할 때에도 『석씨원류응화사적』의 『法華妙典』 도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겸파가 다른 사찰에서 청법 비구상이 삽입된 영산회상도를 조성한 예가 없으며, 다른 부휴문 중 관련 사찰에서도 조성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삼십삼조사도〉와 같이 순천 송광사만의 특이한 僧風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를 의겸이 적절한 도상 차용을 통해 시각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부휴문종과 의겸파는 활발하게 협업하면서 부휴문종 영향권 내의 호남지역 사찰에서 많은 불사를 진행하면서 관계를 이어갔다. 의겸파가 1726년에 南原 實相寺 〈지장시왕도〉를 조성하는데, 역시 부휴문종이 참여하며 불화 조성 불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증사로는 영휴와 진언의 손제자 晩秋霜菊이 등장하는데, 영휴는 송광사 응진당 〈석가모니불도〉(1724) 조성시 증사였으며, 상국 또한 부휴문종의 승려였다. 불사의 화주인 性覺 또한 1725년 송광사 대장전 불상의 개금 불사 때 화주였던 이력이 있다. 또한 같은 해에 의겸파 採仁이 수화승으로 참여한 咸陽 法印寺 〈감로도〉(1726) 조성 불사에도 영휴와 성각이 각각 증사와 화주로 참여하고 있어, 송광사에서의 불사가 의겸파에게 인맥적 기반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29년 부휴문종의 거점 사찰 중 하나인 해인사에서 이루어진 대적광전 〈영산회상도〉 조성도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다(도 10). 〈영산회상도〉의 화기에 따르면 의겸파는 불화를 조성할 때 〈삼신불회도〉, 〈지장보살도〉 등을 함께 조성하였으나 〈영산회상도〉만 현전한다. 이 불화에는 증명의 소임이 따로 작성되어 있지 않는데, 擇璘이 和尚으로, 부휴문종에서 화엄교학으로 명성을 떨쳤

「朝鮮時代 法華經 變相版畫 研究」(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p.76-80 참조.

49 각각 홍곡사 응진전 〈영산회상도〉(1723), 송광사 응진당 〈석가모니불도〉(1724), 해인사 대적광전 〈영산회상도〉(1729)의 畫題다.

50 『曹溪高僧傳』, 『曹溪宗師翠微禪師傳』에서 나오는 기록과 현존 송광사 불상을 통해 靈山殿을 八相殿으로도 칭했다는 점에서도 화기의 ‘八相會’와 연결된다. 김세영, 앞의 논문(2020), pp.140-141 참조.

51 박수연, 「朝鮮後期 八相圖의 特徵」, 『불교미술사학』4(2006), pp.228-231.



던 진언의 문파인 法寬, 정혜가 山中大德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들이 불화를 증명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sup>52</sup> 또한 大覺登階 칭호를 가진 性能이란 승려가 등장하는데, 이는 부휴문중과 인연이 깊었던 桂坡性能으로 추정된다.<sup>53</sup>

이외에도 의겸파는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부휴문중이 간행에 참여한 의식집에 의거한 불화를 그렸다. 청곡사 <영산회괘불도>의 조성 이후 의겸파에서는 『오종범음집』의 영향을 받은 영산회괘불도의 조성이 성행하였다.<sup>54</sup> 『오종범음집』은 각성이 校正하고 序文을 작성하였으며, 각성의 門人인 智禪이 집성하는 등 부휴문중이 간행에 관여하였던 의식집이다. 『오종범음집』의 영향을 받은 영산회괘불도는 천신이 조성한 扶安 來蘇寺 <영산회괘불도> (1700)가 첫 사례인데, 천신 또한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부휴문중과 관련이 깊

은 승장이다.<sup>55</sup> 또한 『天地冥陽水陸齋義梵音刪補集』에 의거한 삼장보살도를 그리기도 하였다.<sup>56</sup> 약탄과 처관이 증명으로 참여한 서울 地藏庵 <지장보살상>의 개금(1742) 또한 의겸파가 진행하며 부휴문중과의 관계를 이어나갔다.<sup>57</sup> 부휴문중은 자신들이 간행한 의식집과 경전에 의거하여 문중의 사상을 시각화해준 의겸에 대해 화승에게는 이례적인 칭호를 사용하며 존경을 다하였다. 해인사 대적광전 <영산회상도>(1729)에는 ‘毫仙’, 扶安 開巖寺 <영산회괘불도>(1749)에서는 ‘尊宿’, 화엄사 <삼신불도> (1757)에서는 ‘大正經’ 등이 바로 그 예다.<sup>58</sup>



도 10. 義謙 등, 해인사 대적광전 <영산회상도>, 1729년, 견본채색, 240×229.5cm, 해인사성보박물관(『韓國의 佛畵』 권4, 도1)

52 택린은 1714~1715년, 1718~1719년에 송광사 주지를 지냈으며 송광사 <영산회상도>(1725)에 前脚으로 등장한다. 법관은 부휴문중의 冲虛法寬이며, 정혜는 晦庵定慧(1685~1741)로 법관과 정혜는 浮休善修-碧巖覺性-暮雲眞言-葆光圓旻-晦庵定慧으로 이어지는 법을 받았다.

53 계파성능의 정확한 생애와 법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행적을 통해 부휴문중과 관련이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성충이 불사에 참여했던 용문사 <목각탱>(1684) 조성기에 처음 나타나고, 각성의 문하에서 3년간 공부했다고 한다. 이어 1699년에는 각성의 유지를 받들어 화엄사 각황전을 중수하는 데 참여하였고, 1711년에는 팔도도총섭이 되어 북한산성을 축성하였다. 이강근, 『華嚴寺 佛殿의 再建과 莊嚴에 관한 研究』, 『불교미술』14(1997), pp.98-99; 이정, 앞의 책(1991), p.143.

54 정명희, 앞의 논문(2004), p.171.

55 이인식, 『來蘇寺 靈山會掛佛圖 研究』(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p.72-76.

56 이용운, 『朝鮮後期 三藏菩薩圖와 水陸齋儀式集』, 『미술자료』72·73(2005), pp.110-111.

57 유근자, 『조선시대 불상의 복장기록 연구』(서울: 불광출판사, 2017), p.170.

58 해인사, 화엄사는 17세기부터 부휴문중의 거점 사찰이었고, 의겸파가 개암사 <영산회괘불도>를 조성할 당시 증명이 처관이고, 화주가 月波贊益으로 추정되어 부휴문중의 영향력이 미치던 사찰인 것으로 보인다. 찬익의 법맥은 다음과 같다. 浮休善修-碧巖覺性-翠微守初-栢庵性聰-石室明眼-醉眞普悅-月波贊益

#### IV. 맺음말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여러 전란 이후 조선 후기 불교계는 황폐해진 터전에 다양한 復舊 佛事를 진행하였다. 복구 불사는 승려 문중이 주도하였으며, 시기별로 佛家에 필요한 불사가 진행되었다. 17세기에는 전각의 중수 및 중창과 佛殿의 중심인 불상을 조성하는 불사가 성행하였다. 18세기에는 불화의 조성이 성행하며 불전을 붓다의 세계로 구현하였다. 이러한 불사와 불전의 구현에는 불사를 진행하는 문중의 사상이 내포되었는데, 여기서 승려 장인들은 문중의 사상을 시각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화승이 불전에 법도를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사찰에 세거하던 승려들의 助力이 있기에 가능하였다. 송광사 〈오십삼불도 회향발원문〉 표현처럼, 불사의 적법함을 증인하는 證師부터 불화를 조성하는 동안 계속해서 誦經하는 持誦 등 불사의 소임자들이 불전에 佛法을 담아낼 수 있도록 화승과 함께 불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sup>59</sup>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중의 사상은 화승을 통해 시각화되었다.

의겸 또한 부휴문중의 영향권 아래에 위치한 호남 및 인근 지역 사찰들을 중심으로 불화 조성 불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겸은 筆力을 성숙시켜나갔으며, 화격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화파를 이끌고 1724~1725년 부휴문중의 종찰인 순천 송광사에서 불화 조성 불사를 진행하였다. 이 불사에서 의겸파는 부휴문중과 협업하여 〈오십삼불도〉, 〈삼십삼조사도〉, 〈영산회상도〉 등을 조성하며 부휴문중의 사상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의겸파와 부휴문중의 이와 같은 관계는 의겸의 만년 작품인 화엄사 〈삼신불도〉(1757) 조성 시까지 이어졌으며, 화승으로는 이례적인 ‘호선’, ‘존숙’, ‘대정경’ 등의 칭호를 부여하였을만큼 문중 사상 시각화의 大家로 인정하고 신뢰하였다.

이처럼 의겸파와 부휴문중은 협업을 통해 서로 영향 관계에 있었다. 부휴문중의 사상적 특징은 의겸파 불화의 특징이 되었고, 그 결과 의겸파는 부휴문중이 선호하는 畫派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이는 의겸파의 화풍이 18세기 이후 부휴문중의 영향권인 호남, 호서, 영남 지방 등 삼남 지방에 영향을 주는 토대로 작용하였다.

---

59 “我作務諸大證師諸大持誦諸大金魚” 송광사 〈오십삼불도 회향발원문〉

## 참고문헌

### 【자료】

『無用堂遺稿』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

『承政院日記』

『雲谷集』

『曹溪山松廣寺史庫』

『枕肱集』

고경·김희태·최인선·양기수, 『역주 보림사 중창기-譯註 寶林寺 重創記』, 장흥: 장흥문화원, 2001.

무용수연, 이상현 역, 『무용당유고』,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5.

이광우 역, 『釋氏源流應化事蹟』, 서울: 法寶院, 2006.

임석진(기산석진), 『松廣寺誌』, 순천: 도서출판 송광사, 2001.

### 【도록 및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掛佛調査報告』,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1992~2004.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6.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대전: 문화재청, 2007~2014.

박세민(세민), 『韓國佛教叢禮資料叢書』, 서울: 보경문화사, 1993.

성보문화재연구원, 『韓國의 佛畫』, 양산: 성보문화재연구원, 1996~2007.

최순우·정양모, 『韓國의 佛教繪畫-松廣寺』, 서울: 國立中央博物館, 1970.

### 【단행본】

고경 편저, 『韓國의 佛畫 畫記集』, 양산: 성보문화재연구원, 2011.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성남: 신구문화사, 2010.

김정희, 『불화, 찬란한 불교 미술의 세계』, 파주: 돌베개, 2009.

문명대, 『한국의 불화』, 서울: 열화당, 1981.

안귀숙·최선일, 『朝鮮後期僧匠人名辭典-佛教繪畫-』, 서울: 양사재, 2008.

유근자, 『조선후기 불상의 복장기록 연구』, 서울: 불광출판사, 2017.

이정, 『韓國佛教人名辭典』, 서울: 불교시대사, 1991.

장희정, 『조선후기 불화와 화사 연구』, 서울: 일지사, 2003.

### 【학술논문】

고영섭, 「벽암 각석의 생애와 사상-李景奭 撰 華嚴寺「碧巖堂 覺性大師碑文」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52, 2019.

김다영, 「조선후기 부휴문종의 불사와 의견과 불화」,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김단일, 「17세기 조선의 『大方廣佛華嚴經疏』 간행과 승려문파의 상관성 : 삭녕 용복사와 순천 송광사 간행본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9.
- \_\_\_\_\_, 「17세기 『大方廣佛華嚴經疏』 간행과 승려문파-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83, 2020.
- 김세영, 「송광사 불조전 53佛과 華嚴·懺悔 사상」,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_\_\_\_\_, 「順天 松廣寺 佛祖殿 佛像과 浮休門中の 思想」, 『미술자료』 92, 2017.
- \_\_\_\_\_, 「朝禪 後期 華嚴 佛事의 地域的 流行과 僧侶門中 交流 : 송광사 화엄전 불사 중심으로」, 『미술사학』 40, 2020.
- 김영희, 「1730년 의겸(義謙)작 내원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연구-조선후기 백의관음신앙의 측면에서」, 『불교미술사학』 29, 2020.
- 김정희, 「불화(佛畵) 속에 표현된 호남적(湖南的) 감성(感性)-의겸(義謙) 불화(佛畵)의 도상(圖像)과 양식(樣式)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49, 2011.
- \_\_\_\_\_, 「碧巖 覺性과 華嚴寺 靈山會掛佛圖」, 『강좌미술사』 52, 2019.
- 김태형, 「朝鮮時代 法華經 變相版畵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현중(현주), 「조선후기 벽암문도의 사상과 신종도 제작」, 『東岳美術史學』 19, 2016.
- 문명태, 「흥국사(興國寺) 1723년 의겸(義謙), 순민(順敏)작 목(木)수월관음보살상(水月觀音菩薩像) 불감(佛龕)과 복장 연구」, 『강좌미술사』 37, 2011.
- 손성필, 「17세기 浮休系 僧徒의 碑 건립과 門派 정체성의 형성」, 『조선시대사학보』 83, 2017.
- 신광희, 「여수 興國寺 十六羅漢圖 연구」, 『美術史學研究』 255, 2007.
- \_\_\_\_\_, 「서른 세분의 위대한 조사(祖師)를 그려 모시다-선암사 <삼십삼조사도>」, 『문학/사학/철학』 48, 2017.
- 신은미, 「조선후기 十六羅漢圖 연구-畵譜圖像의 수용과 전개를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27, 2006.
- 안귀숙, 「朝鮮後期 佛畵僧의 系譜와 義謙比丘에 관한 研究(上, 下)」, 『미술사연구』 8·9, 1994·1995.
- 양은용, 「壬辰倭亂과 湖南의 佛教義僧軍」, 『한국종교』 19, 1994.
- 유경희, 「여수 興國寺 義謙作 觀音菩薩圖 研究」, 『불교미술사학』 8, 2009.
- 유지원, 「朝鮮後期 畵師 義謙의 佛畵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강근, 「華嚴寺 佛殿의 再建과 莊嚴에 관한 研究」, 『불교미술』 14, 1997.
- 이용윤, 「朝鮮後期 三藏菩薩圖와 水陸齋儀式集」, 『미술자료』 72·73, 2005.
- \_\_\_\_\_, 「退雲堂 信謙 佛畵와 僧侶門中の 後援」, 『美術史學研究』 269, 2011.
- \_\_\_\_\_, 「조선후기 嶺南의 畵僧과 僧侶門中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_\_\_\_\_, 「조선후기 통도사의 僧侶門中과 畵僧 任閑」, 『불교미술사학』 23, 2017.
- \_\_\_\_\_, 「조선후기 鞭羊문중의 佛事와 僧侶匠人의 활동」, 『미술사연구』 32, 2017.
- \_\_\_\_\_, 「雪松門中 출신 畵僧 慈雲堂 指演의 활동과 助力者」, 『東岳美術史學』 22, 2017.
- \_\_\_\_\_, 「조선후기 黃嶽山 畵僧의 활동과 碧巖門中の 助力」, 『美術史學研究』 297, 2018.
- \_\_\_\_\_, 「17세기 淸州 畵僧 信謙의 활동과 괘불도 조성」, 『미술사연구』 36, 2019.



- \_\_\_\_\_, 「화승 義均의 불화 구성과 사명문중의 불사」, 『불교미술사학』 28, 2019.
- \_\_\_\_\_, 「일제강점기 기록자료로 본 북한의 조선후기 불화-함경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304, 2019.
- \_\_\_\_\_, 「19세기 후반 영남의 喚醒系 僧侶門中과 四佛山畫派 畫僧」, 『南道文化研究』 39, 2020.
- 이은희, 「雲興寺와 畫師 義謙에 관한 考察」, 『문화재』 24, 1991.
- 이인식, 「來蘇寺 靈山會掛佛圖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이중수, 「조선후기 가흥대장경의 復刻」, 『서지학연구』 56, 2013.
- 장미애, 「해인사 영산회상도(1729년)의 연구」, 『강좌미술사』 32, 2009.
- 정명희, 「朝鮮 後期 掛佛幀의 研究」, 『미술사학연구』 242 · 243, 2004.
- \_\_\_\_\_, 「조선시대 불교 의식과 승려의 소임 분화: 甘露圖와 문헌 기록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31, 2016.
- \_\_\_\_\_, 「1725년 義謙畫派의 송광사 불조전 〈五十三佛圖〉」, 『미술자료』 95, 2019.
- 정병국, 「金泉 七佛寺 三世佛會圖 考察」, 『東岳美術史學』 7, 2006.
- 장희정, 「朝鮮 後期 曹溪山地域 佛畫의 研究」, 『美術史學研究』 210, 1996.
- 최은령, 「금어 의겸 작 목조관음보살좌상」, 『향도부산』 24, 2008.

#### 【누리집】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https://kabc.dongguk.edu>)

# Collaboration Between the Buhyu Monk Clan and the Uigyeom School of Monk Artis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Buddhist Paintings for Songgwangsa Temple in Suncheon

Kim Dayoung<sup>\*</sup>

Most Korean Buddhist paintings from the late Joseon period were produced through collaborative projects (*bulsa*) between clans of Buddhist monks and monk artists (*hwaseung*), in which the monk clans would select themes and iconography for works that would then be produced by the artists and their school. Thus, any attempt to understand the Buddhist paintings of this period must consider not only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monk artists, but also the conditions at the respective temple at the time of production. Applying this methodology, this paper examines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Buhyu monk clan and the monk artist Uigyeom and his fellow artists (hereinafter, the “Uigyeom School”) that took place in Honam (湖南) and surrounding areas in the eighteenth century. In particular, the paper reveals the strong influence that the Buhyu clan exerted on paintings that the Uigyeom School produced in 1724 and 1725 at Songgwangsa Temple, the clan’s main temple.

Following the paintings for Songgwangsa Temple, the Uigyeom School actively participated in similar projects at regional temples under the auspices of the Buhyu clan in Honam, Hoseo (湖西), and Yeongnam (嶺南). Consequently, the Buhyu clan granted Uigyeom several honorable titles—including “Hoseon” (毫仙), “Jonsuk” (尊宿), and “Daejeonggyeong” (大正經)—that were rarely conferred to a monk artist. Such acclaim helped Uigyeom’s style of Buddhist painting to become widespread throughout the three southern provinces of Korea.

The paintings for Songgwangsa Temple exemplify how the Buhyu clan and Uigyeom School collaborated to visualize the thoughts and philosophies of the Buhyu clan. For the Uigyeom School, this project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building the reputation and esteem of Uigyeom, who became one of the most esteemed and influential monk artists of the late Joseon period. As such, the paintings created for Songgwangsa Temple in 1724 and 1725 have great significance not only for Korean Buddhism, but also for art history in general.

Keywords: monk artisan, monk clan, monk artist, Uigyeom, Uigyeom School, Buhyu clan, Songgwangsa Temple in Suncheon, Buddhist project

---

<sup>\*</sup> Curatorial Assistant, Central Buddhist Museum